

#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증거하자!

김성수(기학연소장/고신대학교 총장)

2006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07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에도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기학연 모든 가족들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가정과 사역과 섬기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shalom)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를 그리스도인 학자로 불러주셔서, 부족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안경을 끼고 가르치고 연구하려는 값진 동기와 열정을 부여해 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기학연 회원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2007년도의 해도, 그리고 계속하여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경적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인 교육자와 학자로서의 직분(office)을 신실하게, 그리고 순종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그리스도인 학자의 고귀한 소명

우리는 지금 교회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왕 되신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파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속의 역사입니다. 성경신학자 바톨로메(Craig G. Bartholomew)와 마이클 고힌(Michael W. Goheen)의 표현을 빌리면 성경은 구속의 드라마(Drama)입니다. 성경은 6막 4장으로 구성된 거대한 대하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해피 엔딩'으로 종결되는 '우리의 이야기'(our story)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언제나 왕과 그 백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나라' (Kingdom of God)와 '언약' (covenant)이라는 두 개념은 성경 전체를 풀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6막 4장의 주제를 간략하게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막: 왕이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신다.

제2막: 왕의 나라에서 일어난 반역

제3막: 왕이 반역을 제압하기 위해서 한 백성을 선택하신다.

제1장: 왕을 위한 백성들의 삶

제2장: 백성을 위한 왕(땅을 나누어 줌)

중간시기

제4막: 왕이 오심

제5막: 왕의 소식을 전파

제1장: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제2장: 로마에서부터 땅 끝까지

제6막: 왕의 귀환

우리는 이 구속의 드라마의 핵심을 때로는 창조(creation)-타락(fall into sin)-구속(redemption through Jesus Christ)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6막 4장의 드라마 역시 창조-타락-구속(구속의 시작, 구속의 성취, 구속의 완성)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6막 4장의 드라마로 보는 이 관점은 교회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교육자와 학자들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에서 제5막 2장의 주인공들로 등장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왕의 소식을 로마에서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배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배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제5막 2장에서 등장하여 우리의 배역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모두는 왕의 소식을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지에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왕의 소식을 전파하고자 하는 통찰력과 지혜와 지식을 구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왕의 소식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의 입술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왕의 소식을 전파하는 일을 협의적인 의미의 복음전도활동에만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시대, 그리고 다양한 신념과 가치관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시대에는 독단과 오만의 자세보다는 품격과 교양과 전문성을 갖춘 복음전파의 다양하면서도 효율적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교육과 기독교적 학문의 비전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활동은 바로 왕의 소식을 전파하는 효율적 방편이며 우리의 거룩한 소명입니다.

### 통전적 접근의 중요성

그런데,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서 왕의 소식을 전파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은 개별학문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규범에 대한 순종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기독교적 교육과 학문 활동은 개별학문의 창조 질서와 구조를 무시하고 그 학문의 내용을 ‘기독교화’ 시키거나 복음전파의 도구적 가치로만 이용하는 차원에서 만족하는 활동으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적 교육과 학문 활동은 분명히 성경을 기초로 성경적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지만 ‘성경문자주의’ (Biblicism)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의 구조와 서술, 흐름, 역사성, 다양한 장르, 기독교론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바탕 위에서 기독교적 교육과 학문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integration) 문제의 본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흔히 통용되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용어는 마치 분리된 두 영역으로 존재하는 신앙과 학문을 하나로 합친다는 왜곡된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학문은 분리된 별개의 두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은 본질상 신앙적 활동이며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합’이 아니라 ‘통전적인 기독교학문’ (integral Christian scholarship)의 비전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비전을 공동체적으로 성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서 통전적인 접근을 위한 통찰력은 개별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학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도와고 격려하는 가운데 탐구해 나가야 할 공동체적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기학연의 존재 이유와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 정의(justice)와 평화(shalom)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서 왕의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우리는 또한 ‘정의’와 ‘평화(shalom)’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그 속에서 내주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 (our Story)에 등장하는 왕은 공평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사 11:1-11). 이 왕이 관심을 갖는 정의는 단순히 공평한 산술 배분적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권리(God-given rights)를 억울하고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이신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 병든 자와 가난한자들, 아이들과 나그네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sup>1)</sup> 월터스토폴프(Nicholas Wolterstorff)가 가난(poverty)의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다. 부유한 자가 기아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도울 힘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육체적으로 그 어려운 자를 공격한 것 만큼이나 껄뻐한 정도로 그 주린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겠지만, 평화에 대한 사색과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모든 인류의 연합성을 고려함으로 도출되어진 것은 이 결론이다.”

1) 성경에는 고아에 대한 주님의 돌보심(출 22:23, 신 10:18; 14:28,29; 27:19; 시 10:14, 68:5; 말 3:5), 고아를 학대하는 자의 결과(출 22:24; 신 27:19, 잠 23:10-11, 말 3:5, 사 10:2), 과부를 학대하는 자에 대한 보응(출 22:24, 신 27:19, 사 10:2, 시 94:5, 10; 말 3:5), 어린 아이에 대한 관심(막 10:14), 가난한 자를 위한 공의(시 82:3, 잠 21:13; 29:14, 렘 22:16)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정의가 평화에 필수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적 대감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즐거움(enjoyment)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학자들로 부름 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교육과 학문적 활동을 통해서 정의와 평화를 조장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학과 신학관련 학문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일반 학문’도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정당한 탐구 영역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별 학문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또는 조망(perspective)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학문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나 조망은 기독교적 학문 실천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와 평화가 서로 서로 얽히고 축진되는 맥락 안에서 진정한 실천적 의미와 역동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문화명령과 지상명령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서 왕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소명과 관련하여 창조 명령 또는 문화명령(the Cultural Mandate)과 지상명령 또는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의 관계 문제를 잠시 고찰하면서 신년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은 상호 분리적이거나 대립적인 명령이 아니라 서로 관련되어 있는 상보적 명령입니다.

우리의 드라마에서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왕의 나라에서 반역(타락)이 일어난 후에도 무효화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귀환하는 그날까지 왕의 나라에서 일어난 반역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노력을 약화시킬지라도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서 왕의 소식을 전파하라는 왕의 고귀한 부르심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여러 계명들을 추가로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여러 계명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명령(the Great Commandment)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명령 또는 문화 명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틀/framework 안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대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문화 명령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학문 공동체는 사랑(agape) 가운데 서로 수용하고 자신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상명령 또는 대위임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대위임령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의미 이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위임령의 핵심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

18-20)는 것입니다. 제자란 자신의 생각과 말, 그리고 그 행위의 기초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원칙들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이러한 제자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삶이다. 예수님의 길은 순전히 내적인 영적 순례의 길도 아니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조하려는 현실 정치의 길도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을 밟는 것이다. 그것은 희망적이긴 하지만 비난받기 쉬운 주장을 가지고 세상의 경제와 정치의 중심부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서 얻는 결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추구한다. 이러한 제자도는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 모두에 공평하게 관심을 기울인다. ...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치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여러 표지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모든 명령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 6:33). 이 명령들은 모두 교육과 학문 활동을 포함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의 소식을 전파하며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또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변함없는 가치들을 토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변혁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 맺는 말

사랑하는 기학연 회원 여러분!

기학연이라는 공동체는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증거하라는 고귀한 부름을 받은 신앙의 동지들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신앙의 공동체며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에 기초한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비추는 진리와 빛의 공동체요 썩어가는 세상을 지킬 소금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현대 사회의 왜곡된 과학 기술주의적 낙관론과 거대담론을 거부하는 포스터 모든 사회를 향해 성경이라는 거대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 소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왕에게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6막 4장의 드라마를 통해 교정하고 전략적으로 변혁시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7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증거 하는 일에 신실하게 순종적으로 응답하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26일

기학연 소장

김성수(고신대학교 총장)